

【「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대회」 그 후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이번엔 오랜만에 ESD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

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E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(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)입니다.

이 개념은 지난가을 세계 회의 시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시다만,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, 환경 보전, 국제 이해, 방재 등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부모 자식, 심지어는 손자 세대로 이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이 ESD의 새로운 추진에 관해서는 작년 가을의 오카야마 등의 세계 회의에서 책정된 「ESD에 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」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, 공민관이나 유네스코 스쿨의 꾸준한 ESD 활동, 또한 세계 대회의 성공 등으로 오카야마의 평가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.

한 예를 들자면

1. 유네스코에서 향후 세계의 선두에 서서 ESD를 추진해 나갈 키 파트너로 선정된 것. 시 레벨로 선정된 곳은 오카야마시와 멕시코 시티, 독일 함부르크의 세 도시뿐.

2.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(오카야마 ESD 추진 협의회)가 유네스코 세계 각국의 ESD의 뛰어난 활동을 표창하는 상의 후보로 일본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것

이렇게 오카야마의 ESD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, 그것이 오카야마의 정보 발신에 연결되어 진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.

덧붙여서 저는 지난 5월 23일, 부산의 서쪽에 있으며 오카야마시와 같이 ESD 활동이 활발한 동영시를 방문했습니다.

현지에서는 ESD 관련 시설의 오프닝 세레모니와 회의에 참석했지만, 수백 명 (각국의 ESD 관계자도 있지만, 대부분이 현지 한국 분) 앞에서의 인사에서 「여러분, 오카야마를 알고 계십니까」 라고 여쭙았는데, 많은 분들로부터 「물론」 이라는 기쁜 대답을 들었습니다. ESD 세계에서는 오카야마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.